

보도 일시	2022. 12. 8.(목) 11:00	배포 일시	2022. 12. 8.(목) 11:0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책임자	과장 배양희 (044-203-2751)
		담당자	사무관 문영기 (044-203-2752)

‘현실의 질문에 공예가 답하다’

- 12. 8.~11. 코엑스에서 ‘2022 공예트렌드페어’ 개최, 공예 분야 330여 개사 참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김태훈, 이하 공진원)과 함께 12월 8일(목)부터 11일(일)까지 코엑스시(C)홀(서울 삼성동)에서 ‘2022 공예트렌드페어’를 개최한다. ‘공예트렌드페어’는 국내 최대의 공예 축제이자 공예 전문 박람회로서 소비자와 공예가를 잇는 교류의 장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공예작가, 화랑(갤러리), 공방, 기관 등 330여 개사가 참여한다.

‘획일화된 일상’, ‘인간성 상실’, ‘자연과 환경 파괴’ 현대사회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42개 팀 작품 전시, 주제관 등 다양한 전시관 운영

올해는 양태오 총감독과 함께 주제관, 갤러리관, 브랜드관, 창작공방관, 대학관, 공진원(KCDF) 사업관 등 다양한 전시관을 마련했다.

‘주제관’에서는 ‘현실의 질문, 공예의 대답’을 주제로, 현대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해 답을 찾아가는 공예의 모습을 보여주고 공예의 동시대적 존재 이유와 의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공예는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손으로 만들어 인간적 감성을 전달하며, 지속 가능한 신소재나 기술을 사용해 새로운 쓰임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주제관에서는 이러한 공예의 속성을 살려, 현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인 획일화된 일상, 인간성 상실, 자연과 환경 파괴라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제시하는 공예작가 42개 팀의 작품을 전시한다.

▲ ‘갤러리관’에서는 전문 갤러리와 문화예술기관의 수준 높은 작품을 전시·유통하고, ▲ ‘브랜드관’에서는 공예기업과 공방들의 시장성 있는 공예품을 선보인다. ▲ ‘창작공방관’에서는 역량 있는 공예작가의 참신하고 독창적인 공예품을 전시한다. ▲ ‘대학관’에서는 대학/대학원생의 창의적인 공예품을 전시하고, ▲ ‘공진원(KCDF) 사업관’에서는 공진원의 다양한 사업 결과물을 소개한다.

온라인 사전 전시와 해외홍보, 실시간 구매, 전문 안내 등 연계 프로그램 확대

특히 올해 박람회에서는 온라인 사전 전시와 해외홍보, 실시간 구매, 전문 안내(도슨트), 신진작가 발굴 등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다양한 출품작들은 지난 6월부터 공식 누리집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전시하고 있으며, 주제관은 현장에 방문하지 못하는 국내외 관람객들도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전시 공간(뷰잉룸)으로도 구현했다.

또한 해외홍보 전문가를 위촉해 유럽, 미주, 아시아의 공예 관련 해외 기관과 단체, 매체 약 5백 곳을 대상으로 ‘공예트렌드페어’를 홍보해 작품 거래는 물론 사후 협력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유튜브 이광기 채널에서는 ‘2022 공예트렌드페어 라이브 경매쇼(12. 8. 오후 3~4시 30분)’를 진행해 작품을 실시간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 기간 중(12. 9.~11.) 현장에서는 공예 분야 전문가 12인이 특별 전문 안내원(도슨트)으로 나서 다양한 시각으로 박람회를 관람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장 심사로 우수작가와 작품도 선정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는 등 신진작가 발굴과 양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구매자 유치 확대, 민간 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해 공예작품 유통 지원 강화

아울러 이번 박람회에서는 공예작품 유통 지원을 강화한다. 행사 첫날인 12월 8일(목)은 ‘비즈니스데이’로 지정, 사전 등록된 국내외 구매자, 기업 등을 초청해 기업 간(B2B), 기업과 소비자 간(B2C) 거래 활성화를 꾀한다.

이를 위해 구매자 초청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위촉해 백화점 등 대형 유통사와 관련 기업의 구매자 유치를 확대했고, ‘까사리빙’, ‘와디즈’, ‘챗터원’, ‘재단법인 예울’, ‘프린트베이커리’, ‘마루누마 예술의 숲’ 등 민간의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해 공예작품의 유통과 홍보를 지원한다. 12월 9일(금)부터 11일(일)까지는 입장권 사전 예매 또는 현장 구매를 통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https://www.kcdf.kr/crafttrendfair>)과 공식 인스타그램(@crafttrendfai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1. ‘2022 공예트렌드페어’ 개요
- 2. ‘2022 공예트렌드페어’ 양태오 총감독 약력
- 3. 주제관 참여작가 및 작품
- 4. ‘2022 공예트렌드페어’ 포스터



□ 행사개요

- 행사명: 2022 공예트렌드페어
- 행사기간: '22. 12. 8.(목)~11.(일) / 4일간
 ※ 12. 8.(목)은 비즈니스테이로 사전등록 바이어 등 한정 입장 (일반관람은 12.9(금)부터 가능)
- 행사장소: 코엑스 C홀(서울 강남구 삼성동)
-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참가규모: 공예작가, 공방, 기업, 갤러리, 기관, 대학 등 330여 개사
- 후원협력: (가나다 순) 강남구청, 갤러리아백화점, 까사리빙, 마루누마 예술의 숲, 무신사, 서울공예박물관, 스튜디오끼, 온6.5, 와디즈, 월간도예, 월간디자인, 이스턴에디션, 재단법인 예올, 종로구청, 챗터원, 프리즈한센, 프린트베이커리, 하나은행, 한국재활재단, KB골드앤와이즈

□ 행사구성

<p><주제관> Main Exhibition 2022 공예트렌드페어 행사의 주제 기획 전시 공간</p>	<p><갤러리관> Gallery Zone 전문 갤러리, 문화예술기관의 수준높은 작품 전시 및 유통</p>
	
<p><브랜드관> Brand Zone 시장성 있는 공예기업, 브랜드, 공방들이 선보이는 공예품</p>	<p><창작공방관> New Wave Zone 역량 있는 공예작가의 참신하고 독창적인 공예품</p>
	
<p><대학관> University Zone 대학/대학원생의 창의적인 공예품</p>	<p><KCDF 사업관> KCDF Project Pavilion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KCDF)의 다양한 사업결과를 소개</p>
	

□ 공예트렌드페어 사무국

- (이메일/전화번호) craftfair@kcdf.kr / 02-398-7941
- (누리집) www.kcdf.kr/crafttrendfair / (인스타그램) crafttrendfair

<사진>



<약력>






[경력사항]

- 2022 2022 서울뷰티트래블워크 총괄 디렉터
- 2022 재단법인 예울 20주년 <치유와 다독임의 공예> 전시감독
- 2021 국립한글박물관 디자인&디렉팅
- 2021 GS에너지 HQ 디자인&디렉팅
- 2021 롯데호텔 리트리트 시그니엘 디자인&디렉팅
- 2021 LG생활건강 WHoo 디자인&디렉팅
- 2021 롯데 엘리먼트 바이 엔제리너스 디렉팅
- 2021 국립현대미술관 후원회 라운지 디렉팅
- 2020 국립경주박물관 디자인&디렉팅
- 2020 국립현대미술관 소망나무 디자인 협업
- 2020 국제갤러리 디자인&디렉팅
- 2020 키포크 도산 전시 디렉팅
- 2020 루이비통 트렁크 전시 중 한식방 디자인
- 2020 드고네이 한국 컬렉션 벽지 디자인
- 2019 삼성 <비스포크> 협업 전시
- 2019 바쉐론 콘스탄틴 <One Of Not Many> 전시 (홍콩 페더빌딩)
- 2019 SMT LA 레스토랑 크리에이티브 디렉팅
- 2019 월페이퍼(Wallpaper*) <Handmade> 전시 (밀라노 가구박람회 2019)
- 2019 재단법인 예울 가구 전시
- 2018 이스(EATH) 라이브러리 쇼룸 인테리어 디자인&디렉팅
- 2018 디자인 마이애미 - 펜디 x 양태오 협업 - 피카부백 10주년
- 2017 롯데월드타워 123층 프리미엄 라운지 크리에이티브 디렉팅
- 2017 주중한국문화원 귀빈접견실 디자인&디렉팅

[기타]

- 2022 아키텍처 다이제스트(세계적 건축 디자인 잡지) '2022년 100명의 디자이너(AD 100)' 등재
- 2021 파이돈프레스(세계 3대 아트 전문출판사) 선정 '세계 최고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100인' 등재

□ 주제전시 <현실의 질문, 공예의 대답> : 총 42팀 공예작가 참여

섹션	<주요 작가 및 작품>		
<p>[1] 확일화된 일상 - 지역성과 전통의 재해석을 통한 문화적 다양성의 대안인 공예</p>			
	이경노	유남권	황삼용
			
	김현주	윤규상	이상협
<p>[2] 인간성 상실 - 생각하는 손으로 만나는 인간 회복의 기술, 공예</p>			
	윤상현	김혜정	김준수
			
	김동현	허성자	박성림
<p>[3] 자연과 환경의 파괴 - 지속 가능한 소재와 기술을 통한 자연과 인간 사이의 균형 모색</p>			
	이혜선	강영민	이우재
			
	김하늘	박선민	류종대



색상

- 시간이 담긴 색을 전달하기 위해 자연의 흙과 미네랄 특유의 붉은 입자들의 색으로 표현함.
- 로컬의 특징과 고유한 공지에 대해 주목하는 '몰개성과 획일화'의 논점에는 가장 채도가 높고 시선을 끄는 마젠타를 담아 분홍빛을, '자연과 환경의 파괴'의 논점에는 반짝이는 에너지를 상징하는 황색의 겨자 빛 베이지색을 표현함. 손의 감각을 일깨우고 창의성에 주목하는 '인간성 상실'의 논점에는 손에 담긴 깊은 주름의 갈색톤으로 표현함.



몰개성과 획일화



자연과 환경의 파괴



인간성의 상실

그래픽 모티브 등

- 거울이 현실을 품고 우리를 마주하듯이 현대의 공예가 마주한 세 줄기의 질문들을 공예만의 대답으로 시대를 반영하는 모습을 그려냄
- 공예트렌드페어만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해 포스터 서체의 무드를 담아 행사의 약자표기로 로고를 표현



TODAY'S QUESTIONS, CRAFT TREND CRAFT ANSWERS FAIR 2022